

“수행자 본모습 잘 지켜 국민에 모범되는 자비순례 돼야”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 특별인터뷰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가 8월13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상월선원 만행결사의 '삼보사찰 천리순례'와 관련해 법보신문과 특별인터뷰를 진행했다. 스님은 “이번 천리순례가 한국불교의 과거와 현재가 상존하는 성지를 직접 견경하는 구도의 길이자 국난극복 및 불교중흥을 위한 보살만행”이라고 치하했다. 이날 인터뷰는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가 진행했으며 동화사 회주 의현, 주지 능중, 중앙종회의원 지우, 박물관장 법기 스님이 배석했다. 편집자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발원한 상월선원 만행결사가 올해 9월30일~10월18일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진행합니다. 이번 천리순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척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길 위에서 걸으며 보살만행으로 만 중생을 제도하셨습니다. 이번에 ‘세계평화 국난극복 불교중흥’을 발원하고 실행하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부대중이 두타행으로 불교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고 온 국민을 제도하는 보살만행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순례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2600여년 전 인도에서 척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길 위에서 태어나 길 위에서 대오전성했고, 길 위에서 설법하다가 길 위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생일관(一生一貫) 길 위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한반도 처처가 부처님 청정도량이 아닌 곳이 없지만 사부대중이 특별히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나서니 참으로 의미 있고 역사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국불교의 과거와 현재가 상존하는 성지를 직접 걸어서 견경 정진하는 구도의 길입니다. 순례는 중연생 중연멸(從緣生 從緣滅)의 연기법을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는 고준하고 활기찬 보살만행의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 수행은 간화선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고, 화두 타파를 위해 좌선 정진하는 것이 중심이 됐습니다. 수행적인 측면에서 이번 순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국불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름과 겨울, 안거라는 전통수행방식을 유지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가 8월13일 법보신문과 특별인터뷰를 갖고 한국불교 중흥 및 국난극복을 염원하며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나서는 사부대중을 치하했다.

사진=주영미 기자

하고 있습니다. 안거 기간 중에는 대중이 모여서 결제를 하고, 해제 시에는 선지식을 견경하고 수행도량을 참배하면서 공부를 점검받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만행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이런 만행의 전통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 상월선원 사부대중이 옛 만행 수행전통을 복원하는 것은 산철에도 방일하지 않고 씀 없는 융맹정진으로 이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순례를 계기로 만행결사가 수행전통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염도염공무념처(念到念窮 無念處)라, 걸음걸음 행선에 화두를 놓지 않고 매 순간 일념 정진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돈각(頓覺)에 이를 수 있는 좋은 수행 방법이 될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2019년 9명의 스님들이 위례 천막결사를 진행할 때부터 상월선원 수행대중들을 격려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또 지난해 만행결사대중이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만행순례를 진행할 때에도 베풀어 내려 원만 회향을 당부하셨습니다. 스님께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월선원 만행결사에 깊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월선원 화주 자승 스님이 큰 원력으로 위례 상월선원에서 일반 선방에서도 하기 힘든 추위와 배고픔을 참으면서 1종식으로 90일간 융맹정진을 했습니다. 또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출발해 봉

사부대중이 부처님가르침 따라 순례 나서는 것은 의미있는 일
지혜자비로 서로 탁마하며 향상시키는 활발발한 수행이 될 것
걸음걸음마다 화두 놓치지 않아 회향 때 모두가 활연대오하길

은사까지 천릿길을 행선하며 두타행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은 근래 보기 드문 보살만행으로 사부대중이 함께 정진하는 불교의 진면목을 국민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귀감이 되는 일입니다.”

▲이번 천리순례에는 스님뿐 아니라 많은 불자들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례가 한국불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천리순례 만행정진은 종교 인구가 감소하는 현 시점에서 불교 포교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순례자들뿐 아니라 함께 동참하는 많은 분들이 지혜자비로 서로 탁마하며 향상시키는 활발발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불교는 상구보리로 대오전성의 내적 완성을 추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중생제도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듯 중생제도를 위해 사바세계에 뛰어들어 동체대비의 보현행위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번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로 이어지는 천릿길 만행정진은 상구보리와 하화

중생, 자각각타 각행원만을 동시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이 함께 자비순례 만행결사를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부대중이 함께 두타행으로 구별만행을 실천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결사가 지속되고 심화된다면 침체된 불교를 다시 중흥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대중들이 천리순례를 진행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이번 삼보사찰 순례는 한국불교의 역사를 다시 재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삼국시대 때 전래된 불교는 우리 민족문화의 근간이었고 한국 역사의 뿌리였습니다. 불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불교상을 정립하겠다는 원력을 가지고 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만행 대중이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화합하면서 두타만행의 행선 도중에도 화두를 놓지 않고 수행자의 본모습을 잘 지켜 온 국민에게 모범이 되는 자비순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사 천리순례와 간화선의 행선과는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선종의 위대한 선지식인 임제 선사의 오도기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제 스님이 선에 뜻을 두고 황벽 선사 회상을 찾아가서, 3년 동안 산문을 나가지 않고 참선 정진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당시 입승이던 목주 스님이 임제 스님을 지켜보고 큰 그릇으로 여기고, ‘그대가 지금까지 열심히 참구해 왔으니 이제 조실스님께 가서 한번 여쭙어보게’라고 했습니다. 이에 임제 스님이 ‘무엇을 여쭙어야 하나?’ 하자 목주 스님이 ‘불법의 가장 긴요한 뜻이 무엇인가를 여쭙어보게’라고 했습니다. 임제 스님은 목주 스님이 시키는 대로 조실방에 찾아가 삼배를 올리고 여쭙었습니다. ‘스님, 어떠한 것이 불법의 가장 긴요한 뜻입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황벽 선사는 주장자로 이십 방을 후려갈겼습니다. 임제 스님이 겨우 몸을 이끌고 나와 간병실에서 쉬고 있자, 목주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대가 다시 한번 큰 신심을 내어, 내일 아침에 조실스님께 가서 종전과 같이 묻게’라고 했습니다. 이 경책에 힘입어 다음날, 임제 스님은 다시 용기를 내어 조실방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어떠한 것이 불법의 가장 긴요한 뜻입니까?’라고 묻자, 이번에도 이십 방이 날아왔습니다. 그다음 날도 임제 스님은 조실방에 들어갔다가 역시 종전과

같이 흑독한 방망이만 이십 방을 맞고 물러 나오게 됐습니다. 그 후 황벽 선사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러 가니, ‘어디로 가려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습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고안(高安) 강변으로 가서 대우 선사를 찾게. 틀림없이 자네를 잘 지도해 주실 것이네’라고 말했습니다.

임제 스님이 바랑을 짊어지고 대우 선사의 처소를 향해 수백 리 길을 걸어가는데, 걸음걸음이 의심이었습니다. ‘불법의 가장 긴요한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어째서 황벽 스님은 말이 떨어지자마자 세 번 다 이십 방씩 육십 방을 내리셨을까?’라는 의심이었습니다. 임제 스님은 그대로 일념삼매에 빠져서 걷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수백 리 길을 걸었습니다. 팔만 사천 모공에 온통 그 의심뿐이었습니다. 임제 스님이 여러 달을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고안에 당도해 대우 선사를 찾아냈습니다. ‘황벽 선사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던가?’라고 하니 ‘제가 불법의 가장 긴요한 뜻이 무엇인가를 세 번이나 여쭙다가, 세 번 다 몽둥이만 흠찔 맞았습니다. 대체 저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대우 선사는 무릎을 치면서, ‘황벽 선사께서 그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가르치셨는데, 그대는 여기 와서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가?’라고 하며 ‘허허’ 웃으셨습니다. 순간, 웃는 그 소리에 임제 스님은 홀연히 진리의 눈을 뒀습니다. 그토록 의심하던 ‘황벽 육십 방의 낙처(落處)’를 알았던 것입니다. 임제 스님이 다시 황벽 선사에게 돌아와, 여러 해 동안 모시면서 탁마해 대중사의 기틀을 갖추게 됐습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대중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번 순례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와 우바이 사부대중은 각자 직분에 따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출가수행자는 수행자답게 수행과 포교에 전력을 다하고, 재가자는 재가자의 위치에서 신행과 맑은바 역할을 다해 시대 상황에 부응하는 불교의 역할을 열어가야 합니다. 만행결사 모든 대중들은 부디 수행자로서 본분사를 잊지 말고 화합정진하면서 걸음걸음마다 자신의 화두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행결사를 회향할 때에는 모두가 활연대오해 광도중생(廣度衆生)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2021학년도(2학기) 대원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재)대한불교진흥원 부설 평생교육기관 대원아카데미(구, 대원불교문화대학)와 디지털대원아카데미에서 2021학년도 제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 과정 |

▶ 심리상담사 과정 00명

상담학의 이해, 인지심리학, 불교심리학,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불교상담의 이론과 실제 등

▶ 명상지도사 과정 00명

명상의 이해, 불교란 무엇인가, 정신분석학, 명상과 심리치유, 사마타의 이론과 실제, 위빠사나의 이론과 실제, 불교명상, 마음챙김의 이론과 실제, 불교심리학 등

| 교과과정 |

2년 4학기(학기당 4과목 / 총 15주 / 주중 2일 수업 / 오후 1시 ~ 오후 5시)

| 수업료 및 특전 |

학기당 300,000원

특전: ① 성적 우수 장학금 지급

② 스님 및 가족동반 입학시 수업료 할인(50%~100%)

* 본인 발급 민간자격(불교심리상담사, 명상지도사) 응시 자격 부여

| 교수진 |

김홍근 교수 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철학박사)

문진건 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화학과 교수(동서양 심리학박사)

박문호 교수 자연과학세상 이사장(공학박사)

박성현 교수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자아초월심리학 전공 교수(문학박사)

일중 스님 동국대 선학과 강사(철학박사), 문사수명상연구원 원장

황수경 교수 동국대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겸임교수

| 원서접수 |

제출 서류 : 입학원서(양식 다운로드 www.kbpf.org)

접수 기간 : 7월 1일 ~ 8월 31일

위치 : 서울 마포동 다보빌딩(BBS불교방송) 3층(지하철 마포역 4번 출구)

문의 : (02) 707-1072, 이메일 daewon@kbpf.org

개강일 : 9월 1일(수)

디지털대원아카데미 개설 안내

대원아카데미 강의 전체 영상본을 제공하는
디지털대원아카데미 동시 운영
(집에서 어느 때든 수강 가능함)

접수 기간 : 7월 1일 ~ 8월 31일
수업료 : 200,000원